

보도설명자료 (‘14. 8. 26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속도 지지부진’ (‘14.8.26,
디지털타임스)

1. 보도내용

- 산업부가 지난 6월 야심차게 추진한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의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아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
- 7.31일 기준, 대여 계약을 체결한 가구는 470가구이며, 설치한 가구는 10가구에 그쳐 올해 목표인 2,000가구의 0.5%에 불과
- 460가구의 경우도 9월 이후에나 시공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같은 속도로는 ‘2000가구 설치’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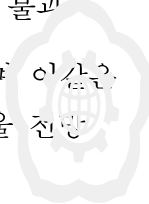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

- 8.21일 현재, 태양광 대여 계약을 체결한 가구는 883가구이며, 설치완료된 가구는 122가구임
- 대여사업자가 6월말에 선정된 점을 감안할 때, 두 달이 지난 현재 목표 대비 44% 수준(계약기준)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
- 단, 설치 상담, 계약 체결, 기자재 운반, 시공, 설치 완료 등 일련의 진행절차 때문에 실제 설치는 계약시점과 한달 정도 시차가 있어, 계약건수와 설치건수에 차이가 있음

* 현재까지 계약 후 소비자가 포기한 사례는 없어 계약건수가 그대로 설치건수로 이어질 전망

- 현재시점에서의 계약건수와 대여사업자들의 약정물량(2,039가구) 등을 고려할 때, 올해 목표치 2,000가구 달성은 무난할 전망
- 산업부는 올해 목표치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태양광 대여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설명회, 언론홍보 등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. 끝.

※ 자료문의 : 신재생에너지과 노건기 과장, 박병기 사무관(044-203-5172)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